

생명, 돈으로 사고팔면 안 되는 것

글_ 서상희 이모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어.

그림_ 소경섭 삼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부터 찾게 돼. 병원에 가서 의사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지. 이 과정을 보통 '의료'라고 해. 그런데 동무들, 이런 의료를 이용하면서 혹시 불편한 점, 없었니?

몸도 아픈데, 부모님이 비싼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까지 아팠던 적은? 친구와 놀다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른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기다렸다가, 동네에 나를 치료할 만한 병원이 없어 멀리 차를 타고 간 적은? 기침이 나고 아프긴 한데, 내과에 가야 할지 이비인후과에 가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곤혹스러웠던 적 없었어?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이랑 저 병원의 병원비가 달라서 황당했던 적은? 아, 동무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봤겠구나. 어쩌면, 몸이 너무 아파서 다른 곤란했던 것들을 기억 못 할지도 몰라. 물론 아예 겪지 않았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의료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해.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고, 나도 언젠간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어떤 나라는 '모든 어린이'가 돈을 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어.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나라 중, 꽤 많은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주치의'가 있어서, 나나 부모님이 내 몸의 증상을 파악해서 어느 과에 갈지 정하지 않아도 돼. 주치의가 알려주니까. 주치의는 단골 의사랑 비슷한 건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고용한 공무원 의사야. 그들은 내가 예전에 어디가 아팠는지 지금은 어떤지 잘 알고,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리고 더 전문적인 병원으로 가야 할 때는, 나를 대신해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찾아주지. 또, 같은 증상으로 '김철수 의원'과 '이영희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두 의원의 병원비는 다르지 않아. 내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없거나 아주 조금이고. 이런 제도를 어려운 말로 '국립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거든. 영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어.

한국에도 주치의가 있는 사람이 있긴 해. 큰 회사의 돈 잘 버는 사장이나 대통령같이 높은 직위의 사람, 그리고 비싼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주치의를 연결해주기도 하지. 그런데 이모는 돈이 많은 적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치의가 있고, 아플 때 무료로 병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특히 어린이는 무료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무료라니까 낫설지? 그럴 거야. 의료도 흔히, 가게에 있는 상품처럼, 돈으로 사고파는 거로 여기니까.

그런데 말이야, 의료가 정말 상품일까? 이걸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어른들은 이 문제로 많이 다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동무들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 양심, 배려, 책임감 같은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배웠어. 그리고 생명 역시 돈으로 사고팔 수 없고.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의료를 돈을 주고 살까? 어린이에게조차 '의료'를 돈 받고 팔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서, 이모는 동무들에게 많이 미안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도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가 없도록, 제도와 정책이 바뀌도록, 이모도 계속 노력할 테니까, 동무들도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지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힘이 조금 더 나면, 동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세상에 널리 널리 알려줘. 